

장흥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역 활기'

상가 간판 정비 등 경관 개선 장흥누리센터 착공 복지 증진

장흥군이 장흥읍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성공으로 지역 활기를 되찾았다.

장흥군은 주민들의 참여 속에 지역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2023년 결실을 앞두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장흥군은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중심지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2년여에 걸친 주민 의견수렴과 중앙계획지원단의 컨설팅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후 2020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2021년부터 시설공사에 착수했다.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는 총120억원(국비지원 사업)의 예산이 투입됐다.

사업은 크게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경관 개선,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구분된다.

세부사업으로 △장흥누리센터 신축 △배후마을회관 개축 △가로정비 사업 △세대공감 간판정비 △공동체 활성화 주민지원 프로그램 등이 추진되고 있다.

군은 지난해 3월 378개소 상가 간판정비 사업을 마무리 했다.

이어 9월 배후마을 지원으로 장흥읍 성불2구, 송암, 덕제2구의 마을회관 개축 사업을 착공, 3월 준공할 예정이다.

2023년에는 덕인주차장 부근 주민쉼터 부지에 (가칭)장흥누리센터가 2월 중



장흥누리센터 조감도.

착공해 올 연말까지 공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흥누리센터(3층, 연면적1308㎡)는 주민들의 거점 공간으로써 북카페, 어린이놀이방, 동아리방, 마을방송스튜디오 등이 들어선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연계해 새로운 체

험관광 상품이 될 생약초 피부관리 테라피실을 조성해 주민복지 증진과 함께 관광객 유입을 통한 장흥읍 중심지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가로 정비 사업으로는 장흥로(정하 APT-파출소)와 중앙로(군청~군민회관)에 인도를 조성한다.

군은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중앙로의 유동 인구 증가를 통한 상권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주민의견 수렴과 농식품부 중앙계획지원단의 컨설팅을 통해 당초 계획부터 지역주민이 합심해서 만든 계획"이라며 "장흥읍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사회복지시설 난방 '긴급 점검' 정기명 여수시장 현장 방문

여수시는 정기명 여수시장이 지난 6일 사회복지시설 난방실태 긴급점검을 진행하는 등 소통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정 시장은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난방상태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동행한 직원에게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난방비 지원사업을 대상자가 누락 없이 적시에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정 시장은 안산동 장성마을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으며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에너지 바우처 등을 안내하고 경로당의 난방비 지원여부를 확인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난방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복지 안전망 구축에 힘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순천시, 오늘부터 시범 운영

순천시는 올해부터 소방차와 구급차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해 긴급차량이 출동하면 우선적으로 녹색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긴급차량이 목적지까지 정차하지 않고 이동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해 8~17일 시범운영한다.

국도교통부의 지능형교통체계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이 시스템은 긴급차량 내 설치된 단말기에 목적지를 설정하면 신호대기 없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교통관제센터에서 출동 구간의 교통신호를 녹색신호로 연동시키며 교차로 통과 후에는 다시 정상신호로 되돌리는 방식이다.

그동안 교통정체로 긴급차량의 출동시간이 지연되고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됐는데 우선신호시스템 도입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와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국가산단 동호안 신산업 활성화 광양시,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

광양시는 광양국가산단 동호안 부지에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에너지, 이차전지 등의 신산업분야 투자유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글로벌도시를 조성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광양제철 동호안은 1989년 광양제철소 설비확장 부지와 슬래그 처리장 조성을 목적으로 국토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포스코가 개발을 추진 중이다.

현재 230만평 중 135만평에서 공장이 설립, 운영 중이고 95만평이 미사용 또는 공유수면 매립 추진 중으로 포스코에서 동호안 부지에 2차전지 소재와 수소생산 등 신산업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광양=안영준 기자

편식 예방 요리 교실 운영 광양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광양시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오는 23일까지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가족과 함께하는 편식 예방 요리 교실'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요리 교실은 오감을 통한 식재료와 친해지는 삼색 주먹밥 만들기, 영양간식 조리 실습으로 구성된 음식에 대한 선입견, 다양한 조리법 등을 받아들이는 계기를 마련해 어린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양교육 프로그램이다.

유치부 1인과 보호자 1인을 1팀으로 32명을 모집해 2회차를 운영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16명을 대상으로 2회차 운영해 총 4회에 걸쳐 편식 예방 영양교육을 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호자와 함께 식품자전거를 이용한 5대 영양소 구성을 알아보고, 식재료의 친숙감을 주기 위해 어린이가 직접 김, 당근, 계란 등을 볶기, 썰기, 찢기 등에 참여하는 삼색 주먹밥 만들기 체험으로 운영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시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가 오는 23일까지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가족과 함께하는 편식 예방 요리 교실'을 운영한다. 광양시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제공

자체 개발 항만물류특화 강좌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YGPA)는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에 자체 개발한 6차시 분량의 항만물류특화 강좌를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강좌는 13일부터 K-MOOC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강좌는 '항만물류와 4차 산업혁명 II'로 기존에 개발된 '항만물류와 4차 산업혁명' 강좌에 신규 콘텐츠를 추가한 것이다. 콘텐츠는 △여수·광양항과 자동화 항만(디지털트윈) △여수·광양항의 미래(블록체인) △미래의 항만물류 인재 양성(글로벌 트렌드) △AI 기반 항만산업 △IT기술로 구현하는 스마트 물류 △해양수산업 이해와 발전 방향 등 6차시로 구성됐다.

학습자들은 강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미래의 항만을 이해하고, 여수·광양항에 적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항만과 관련된 학습자들의 다양한 질의 사항을 현업직원의 연결을 통해 해결하는 등 학습 활동을 마련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순천시, 국내 최초 흑두루미 위치추적기 부착

이동 경로·서식지 행동패턴 연구

순천시가 흑두루미 이동루트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순천시는 지난 4일 국내 최초로 순천만 흑두루미 5마리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데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천연기념물 228호로 등록된 흑두루미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적색목록의 취약종으로 분류된 국제적 보호종이지만 흑두루미의 시공간 이동 패턴과 경유지에 대한 국내 연구는 진행된 적이 없었다.

지난 4일 순천시와 전남대학교, 한국환경생태연구소가 순천만에서 흑두루미 5마리를 포획하여 위치추적기 부착에 성공했다. 방사된 흑두루미의 위치 신호는



정상적으로 수신되고 있다. 국내 최초로 흑두루미 이동 경로 연구가 시작된 셈이다.

이동통신망 기지국을 통해 수신받는 위치추적기 무게는 22g이며 태양광 충전식으로 전원을 공급받아 2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흑두루미의 이동 경로와 서식지 이용 패턴 등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생태정보까지 확

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집된 정보는 순천만 흑두루미 보전 전략 수립과 지자체 간, 국가 간 서식지 보전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흑두루미 서식지 확대와 분산을 위한 지자체 간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흑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위한 순천시의 경험과 지식을 전 세계와 공유하여 대한민국 미래도시의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달 12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충남 서산시 등 6개 지자체와 흑두루미 서식지 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 보전에 공동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고흥물 누적매출 10억 달성... 1년새 매출 4배 ↑

고흥군에서 운영 중인 농수특산물 직영 온라인 쇼핑몰인 '고흥물'의 신장세가 가파르다.

7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물'은 지난 1월 진행된 설 명절맞이 판촉전에서 1억 3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0% 매출이 증가했고 누적 매출은 10억원을 돌파하는 등 고흥물이 관

내 생산자 판로 확보 및 수익증대에 효과 노릇을 하고 있다.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후 '고흥 농·수·축·임산물 브랜드화 및 판로 개척'을 공약사항으로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온라인 판매 전략을 수립해 지난해 8월 고흥우체국과 '우체국 쇼핑 브랜드관 운영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고흥물 온라인 시

장 경쟁력 강화에 나선 결과로 분석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생산은 농어민이 하고 판매는 고흥군이 한다"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판촉이벤트와 맞춤형 타겟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이뤄낸 성과"라며 "공격적인 고흥물 운영 전략을 통해 매출 올해 20억원을 달성해 고흥물을 통한 직거래 확대로 농어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